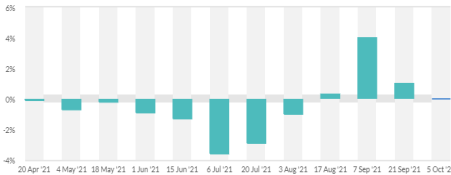




[가격동향] GDT 유제품 가격 포함세 기록

- 서유럽 수출가격, 전지분유버터는 상승세, 탈지분유는 하락

Change in GDT Price Index



Summary of Results

Number of Winning Bidders	126	Number of participating bidders	179
Number of Bidding Rounds	16	Quantity sold (MT)	28,667
Duration of Trading Event (hours/mins)	2:33		
Minimum Supply (MT)	27,325		
Maximum Supply (MT)	32,565		

지난 10월 5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2회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유제품 가격이 포함세를 기록했다. 가격지수 또한 1,229포인트로 전장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2주 전 하락했던 체다치즈가 톤당 4,297달러(약 510만원)로 0.7% 오르며 재반등 했고, 버터도 0.4% 오른 톤당 4,878달러(약 579만원)를 기록하며 다시 한 번 재상승 했다.

탈지분유도 0.5% 상승하며 톤당 3,315달러(약 393만원)를 기록한 반면, 전지분유는 톤당 3,749달러(약 445만원)로 0.4% 떨어지며 3회 연속 상승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10월 1일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은 2주전 대비 탈지분유는 0.4% 하락한 반면, 전지분유는 1.3%, 버터는 1.5%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10월 5일 >

[지속가능] 英 셰필드대학, 플라스틱 우유병 감축 나서

- 스테인리스 우유통 활용, 연간 6만개의 플라스틱 병 감축 목표



영국 셰필드대학교가 지역 낙농가와 함께 캠퍼스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우유병 감축에 나섰다.

최근 학교 측은 캠퍼스 내 위치한 카페에 공급되는 플라스틱 우유병 사용량을 줄이고자 인근 지역농가로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우유통으로 우유를 공급 받을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먼저 유동인구가 많은 3개의 카페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연간 2만 7천개의 일회용 우유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캠퍼스 내 전체 카페로 확대해 연간 6만개의 우유병을 감축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이며, 캠퍼스로 우유를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도 65%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대학교는 일회용 제품 사용 감축을 위해 금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20펜스(약 324원)를 추가로 부과하고 재사용 가능한 컵을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출처 : sheffield.ac.uk, 10월 4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